

지역 매아리

부안해양경찰서

민·관·군 합동 인명구조 훈련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29일 부안군 입수도 북동쪽 약 1.8km 해상에서 낚시배가 충돌로 인해 전복과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민·관·군 합동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낚시배의 전복·화재사고를 가정, 현장훈련과 연계한 지역구조본부 비상기동을 통해 대응반별 해양사고 대응능력 제고 및 구조세력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훈련에 부안 해경 경비함정 4척 등, 부안군청, 부안 대대, 한국해양구조협회, 민간해양구조대 등 선박 총 10척과 100여 명이 참여해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 등에 의해 익수자 16명이 안전하게 구조되며, 이어 해경 구조대와 한국해양구조협회 잠수 사들이 전복선박 선내 진입·수색 중 선내 고립자 2명 구조 및 실종자 수색 중 2명 구조를 하면서 훈련은 마무리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행복한 생활과 즐거운 인생' 교육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임소연)이 지역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으로서의 행복한 생활과 즐거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증상관리, 응호활동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족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 후에는 가족모임을 통해 평소 가족의 어려움 및 고충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등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비브리�균 등

오염 우려 수산물 지도 점검

정읍시보건소가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보건소는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비브리오 패혈증 등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각종 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내달 5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소는 ▲수산물들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할어 보관 시설이나 운반차량의 위생 상태 ▲수산물 취급자의 개인 위생 관리 ▲증급속이나 잔류농약 등의 유해 물질 오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민 안전보험 가입

군, 화재 등 총 18종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내년 2월 7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누구든 각종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고창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험료도 고창군에서 일괄적으로 납부 완료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창군민 누구나 올 2월 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폭발·화재·붕괴 사망, 자연재해 사망 등 총 18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지진, 조수 등) 등 총 18종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된다.

재난안전과 성홍택 과장은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복지차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농협이 지난 30일 부안 농협 영농지원센터에서 보리수매용 톤백을 무상으로 지원한 전담식을 가졌다.

보리수매용 톤백 무상 전달

부안농협, 총 5,200매 4천 6백만원 지원
영농비 부담 경감·농가소득 향상 기여

조합원을 위한 조합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는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지난달 30일 부안 농협 영농지원센터에서 보리수매용 톤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전담식을 가졌다.

부안농협은 2017년에 보리양정 수매 450농가에 계약물량 3,120톤, 최저보장가격 3만8,000원(40kg 겉보리 1등급 기준)으로 계약하여 수확철을 맞은 계약 재배농가에 톤백(800kg) 5,200매 4,600만원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농협은 관내 보리계약 재배물량 이외의 잉여물량 5,000톤이 남아

농가들에 피해를 입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원철 조합장이 년초부터 수요처를 찾으려고 농협중앙회에 적극 수매를 요구, 지난 5월 계약물량 이외의 전량을 수매한다는 답변을 얻어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은 반드시 팔 것이라는 세일즈정신을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특히 김원철 조합장은 지난 "정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대비 보리차를 생산하는 동식식품과 2010년도 500톤을 시범적으로 계약재배를 하여 신뢰를 얻은 결과 지금까지 연간 소요물량 4,500톤 전량을 전복으로 유치하는 등 농가소득에 증대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왔다. /부안=이옥수 기자

코미디언 팽현숙 정읍시민 대상 특강
"귀찮은 것을 즐겨라"

6월 27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미디언 팽현숙씨가 귀찮음의 미학을 주제로 정읍에서 특강을 갖는다.

시에 따르면 팽씨는 내달 27일 오후 2시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귀찮은 것을 즐겨라'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팽씨는 순대국집 운영과 부동산 투자 등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지금의 안정적인 위치에 오르기까지 따라다녔던 '귀찮음'의 미학을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강은 제70회 정읍 단풍아카데미(前 시민행복특별강좌) 일정으로 마련됐다. 같은 코미디언 동료인 최양락의 아내인 팽씨는 1985년 제3회 KBS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했다. 1988년 당시 KBS 유머일번지의 '남 그리고 여'와 쇼비디오까지 '네로25시'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던 최씨와 결혼했다.

2011년에 SBS 연예대상 베스트 킥살과 토크쇼부문 베스트엔터 테이너를 수상했고, 현재는 종합편성채널에 다수 출연하면서 팽현숙의 옛날 순대국을 흡소핑에 런칭,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과시하고 있다. 또한 투자에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해 관심을 모은 바 있고 저서로 '팽현숙의 내조재테크'가 있다. 현재는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정읍 단풍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 시민의 행복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해오고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가 강사로 나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지식과 삶의 지혜를 전달하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무료로 실시된다.

7월에는 국내 최초 오지여행 전문가이자 국제구호활동가를 활약하고 있는 '바람의 딸' 한비아제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촌일손돕기 대대적 추진

모내기철과 맥류·과실 수확기가 겹치면서 농가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가 곤란해지면서 적기 영농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 매년 봄(5월~6월)과 가을(10월~11월) 영농철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고 30

일 밝혔다. 관련해 시는 이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철 일손돕기 기간으로 전직원들의 참여하는 일손돕기에 나서는 한편 기관·단체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각 기관과 단체에 일손돕기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학생들의 참여 시 봉사활동 확인서도 발급(작업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발급, 개인 참여 시 발급 불가)해주고 있다.

시는 특히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농가 당 10여명 단위로 편성해 지원하고 1일 4시간 이상 작업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 농가의 부담이 없도록 간식과 작업도구 등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농축산관에 '일손돕기 지원 창구' 설치해 일손돕기 참여 희망자와 인력 지원 대상 농가를 연결해주고 있다고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일자리 창출 전담 위원회 설치하겠다"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는 30일 "이번 선거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정책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일자리가 풍부해서 활력이 넘치는 부안을 건설하겠다"는 일자리 늘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청년층, 노년층, 여성층의 일자리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고용주와 고용희망인을 총 망라한 군수직속 '일자리 창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권후보는 특히 부안군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미처 노후준비가 안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권후보는 또 청년들이 부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후보는 지역경제활성화 통합센터 내에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를 지원 육성하려는 전담 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 부안을 찾아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피력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wine bottle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러운 맛에 뒤음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It also lists several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